

## 은유한 메시아, 단호한 여호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내가 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고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기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래 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개역, 이사야 42:1~17]

# 언

제가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계란 깨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란을 집어서 옆에 있는 통에 깨서 알맹이는 뽑아내고 껍질은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라면 삶는다고 계란 하나를 손가락으로 깨는 것도 잘 안되는 수가 있는데 달인이라고 하는 이 분이 하루에 300개도 깨고 500개도 깨는데, 기계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하는 로봇을 하나 만든다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로봇이 계란을 꼭 집으면 깨져버릴 겁니다. 깨지 않고 집어 올리려면 아마 물렁물렁한 고무 같은 것을 안쪽에 붙여서 집어도 빠지지 않고 또 깨어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집어 올리고, 가져 와서는 탁 때리고, 들어 올리면서 살짝 눌러 툭 깨고, 껍질만 빠져 나오게 하는 아주 세밀한 동작을 하도록 해야지요. 사람 손이니까 당연히 그런 동작을 하는구나 싶지만 로봇을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심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하시면 우리는 전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였을까요? 음성을 듣고도 견딜 자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아주 빨리 움직이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진 로봇이 계란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거기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고무를 잘 붙여서 조심스럽게 쥐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십니다. 계란깨기 달인이 부지런히 계란 깨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1차로 포로를 귀환시키는 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 여기

서 말하는 메시아인 셈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레스 왕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 훗날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아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본문도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느 왕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훗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1절 후반부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이 왕은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중간쯤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라고 말하고 4절에도, '그는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구절구절마다 거기에 공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의롭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전부 뒤엎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이 그렇고 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과거와의 어떤 단절을 노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금부터는 안됩니다' 이리다 보면 예전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부 죄인이 되고 반드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람이 등장하면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되는데도 메시아는 아주 유순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권력을 잡고 바벨론을 칠 때 평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은 나라들은 고레스가 온다는 얘기만 듣고 성문을 열고 자진해서 항복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등장한 고레스 왕이 순식간에 바벨론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일차로 이 본문이 고레스를 향해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실 분이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유순하고 자비로운 정복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까? 공갈, 협박, 목소리를 높여서요? 아닙니다. 너무나 여리고 여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며 죽어버린 그 분이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웃지 않습니다. 좀 엄하게 보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잘 잡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들에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날 첫 시간부터 환하게 웃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만만하게 봅니다.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항상 아이들을 즐겁게 하며 웃으며 아이들을 대해야 하지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무나 유순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하시고 내가 택한 자라는 그 분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시골 면장이라도 대통령이 택해서 불러올리면 강력한 장관으로 행세합니다. 그렇게 올라간 분이 사람을 고분고분 다루지 않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으니 한번 보자' 하고 세상을 뒤엎을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 정상입니다.

새로 정권을 잡으면 과거와 단절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전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아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름을 바꾸지요. 지금 정부는 참여정부입니까? 그 이전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 앞의 정부는 문민정부, 왜 그렇게 이름을 자꾸 바꿨습니까? 뭔가 앞의 정부와 차별화 하면서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고 떠드는 것이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형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한 그 분은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대선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오히려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대가 뭐 그리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상한 건데 어디다 쓰겠습니까마는 그것조차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아니하시는 부드럽고 유순한 분으로 오십니다.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불품없는 즐기처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실현시키는 위대한 왕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왜 끄지 않을까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깁니다, '가만 놔두어도 꺼질 것인데 굳이 끌 것 뭐 있어?' 고약하지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꺼져 버릴지 모르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보호하시고 키우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 없이 꺼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온 땅에 공의를 베풀면서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드럽게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은유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이런 측면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라면 권위도 좀 있어야 되고 엄숙해야 되지요? 우리 조상들이 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좀 은유한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권위를 부리는 지도자는 누수현상이 생겨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힘으로 사람들을 통솔할 것이 아니라 자비하고 유순한 모습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바보짓 많이 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매로 때려 가며 고향쳐 가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유약해 보이고 부드럽고 자신만 희생하는 분이십니까? 본래 그런 분은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에 이름이 긴 것은 이상합니다. 가령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학교 동창회 회장이시며 또 제철의 사장이시며 또 인자하고 너그럽기가 그지 없으신 우리 아버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긴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셔서 엄숙하게 뭔가를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편한 복장으로 잘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군복에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찍 달아서 나타나면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언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무슨 선언인지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영광을, 어느 누가 내 찬송을 건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한다면 반드시 한다는 선언입니다.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한 후에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어찌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말씀하셨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산헤립이 십팔만 오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허물어버리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깨끗하게 이루어진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겠다고 한 말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냐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중, 택한 그 분을 이끌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어버렸음에도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메시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그 분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언약에 이방인도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1절 후반 절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는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뭘 합니까?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라고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에베소서 2:1)'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유순하고 자비로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소경처럼 눈이 먼 자, 갇힌 자를 다 풀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름에 걸맞게 반드시 행하고야 말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뭘니까? 노래는 오래된 것이 좋던데 왜 새 노래일까요?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터인데 이 일에 맞는 찬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왔던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고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가 뭘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긴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강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노래라면 그렇게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마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누렸던 감격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항해하는 자, 바다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섬에 있는 거민들이 노래하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에서 볼 때 땅이 끝나는 그 너머에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섬이 있고 거기에 항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까지 찬송을 부르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노래를 부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11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명과 사람들이 나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기달 사람들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지명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광야도 나오고 촌락도 나오고 산 꼭대기도 나옵니다. 이진 사람이 별로 없는 장소입니다. 그 곳에서도 찬송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가 찬양해야 될 만한 큰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기에 이렇게까지 엄숙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우리도 좀 느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오래 동안 고통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산통이 오는 것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귀하디 귀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일의 내용이 두 종류입니다. 우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로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것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는 16절에,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더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태복음 11:4-5)' 그러죠. 내가 바로 이 땅에 와야 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소경이 보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구약에도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밝게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알지 못했던 그 길,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라서 감격이 좀 덜한 것은 곤란합니다. 이걸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 주었으며 가르쳐 주었느냐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은유하고 자비로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남긴 말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렸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계란을 집어서 운반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로봇이 힘은 세지만 세다고 꼭 잡으면 다 깨어집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쓸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그 분이 함부로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을 지르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얼마나 강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노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더니 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끝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일에, 참 과분한 표현입니다마는,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들여 가르쳐 놓았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베드로의 선생님이었으면 흔히 하는 말로 맞아 죽었지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마디 야단도 책망도 하지 않고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기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일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온 세상을 총칼로 다스려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었을지라도 예외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으로만 대했던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야단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꼭 야단맞아야 말을 듣는 아이, 참 답답합니다. 매 맞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복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 맞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징징 울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매 안 맞고 야단 안 맞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왜 꼭 매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까?

아이들이 시험치면, 가령 커트라인에 여러 명이 몰렸을 때는 통지표의 앞에 있는 과목의 점수가 높은 아이가 이깁니다. 제일 앞에 무슨 과목이지요? 도덕, 국어, 사회... 입학시험의 경우에 "커트라인에 몰렸을 때는 도덕 점수가 높은 아이가 이긴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내일부터 도덕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더니 도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한 개 더 맞춰서 커트라인을 넘어설 생각을 해야지 왜 커트라인에 걸릴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징계 안 하고 큰소리 안 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왜 꼭 한대 맞고 정신 차리려고 애를 쓰는지 이상한 노릇 아닙니까?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자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되 온유한 방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